

『靈樞·五變』에 對한 研究

金聖洙·高晟豪·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對於『靈樞·五變』的研究

金聖洙·高晟豪·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本篇以刀斧欲伐樹木作比喻，說明疾病的形成，雖有外來病因的侵襲，但主要還是從體質的強弱來決定的。篇中列舉五種不同的樹木爲例，說明在每個季節中，分別受到自然界風霜早雨等影響，因樹木質地有堅脆的不同，其損害的程度亦各有不同。又把這個情況與人體的發病過程相聯系，以五種不同的病變爲例，說明疾病的發生，也由於人體骨節，皮膚，腠理的堅固與脆弱等情況來決定的。本篇因主要論述五種不同的病變，所以稱爲五變篇。

關鍵詞：風厥，消痺，寒熱，留痺，積聚。

I. 緒論

『五變』은 『靈樞』 第四十六에 編述되어 있는데, 『甲乙』에는 卷八 第一 第二, 卷十 第二, 卷十一 第六, 卷十二 第六에, 『類經』에는 卷十七 「疾病類·風邪五變」에 敍述되어 있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에는 모두 三章 五節로, 『靈樞經白話解』에서는 八章으로, 『黃帝內經靈樞經校注語譯』과 『靈樞經校釋』에서는 九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는 『黃帝內經章句索引』에 따라 三章, 五節로 나누어 研究하였다.

本篇은 自然現象을 빌려 事物의 變化가 外

因과 內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發生한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으며, 아울러 疾病의 發生과 發展은 '內外相得'의 狀況下에서 發生하는 것이므로 外界病因의 角度로만 疾病을 認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疾病의 發生이 代개는 風雨寒暑 등 外邪의 侵犯에 의하지만 發病與否의 決定的인 要素는 사람 體質의 強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風厥, 消痺, 寒熱, 留痺, 積聚의 五種病變을 例로 들어 內因이 疾病發生의 決定的 要因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들 疾病은 치료보다는 豫防이 重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本篇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는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이 많고 앞뒤의 文句가

* 敍신저자 : 이남규, 전남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한외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E-mail : ngoo3525@hanmail.net Tel : 061-330-3525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研究成果를 參照하여 校勘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精確한 理解를 돕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方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釋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本문의 단락을 『黃帝內經章句索引』, 『靈樞經白話解』, 『黃帝內經靈樞經校注語譯』,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그 內容에 따라 三章, 五節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f00', 文獻의 章節에 'f00',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記하였다.

2. 研究 資料

표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黃帝內經靈樞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衆書本	統本
5	校注語譯에서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6	인용한 明刻本	明本
7	書目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8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日刻本
10	日本舊抄本	日抄本
11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2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注證發微
13	黃帝內經靈樞集注	集注
14	類經	類經
15	靈樞識	靈樞識

표 2.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1	馬蒔	明	黃帝內經注證發微	馬
2	張介賓	明	類經	景岳
3	張志聰	明	黃帝內經靈樞集注	張
4	黃元御	清	靈樞縣解	黃
5	丹波元簡	1756	靈樞識	丹波
6	陳璧疎·鄭卓人	1862	靈樞經白話解	白話解
7	楊維傑	1976	黃帝內經譯解(靈樞)	傑
8	澁江抽齋	1981	靈樞講義	澁江
9	郭藹春	1981	黃帝內經靈樞經語譯	語譯
10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Ⅲ. 本 論

第一章 疾病發生의 要素

【原文】

黃帝問於少俞曰 余聞^{현대}百疾之始期⁽¹⁾也必
生於風雨寒暑^하나 循毫毛而入腠理^하야 或復還⁽²⁾
하고 或留止^하며 或爲風腫汗出^하고 或爲消痺^하고 或
爲寒熱^하고 或爲留痺⁽³⁾하고 或爲積聚^하야 奇邪淫
溢^을 不可勝數^라하니 願聞其故^하노이다 夫同時得病
에 或病此^하고 或病彼^하하니 意者天之爲人生風乎인
저 何其異也오

少俞曰 夫天之生風者⁽²⁾는 非以私百姓也오 其行
이 公平正直⁽³⁾이라 犯者得之^하고 避者得無殆^하니
非求⁽⁴⁾人이오 而人自犯之^나이다

黃帝曰 一時遇風^하야 同時得病^하이어늘 其病各異^하
니 願聞其故^하노이다

少俞曰 善乎哉^라 問이시어 請論以比匠人^호라이다 匠
人이 磨斧斤⁽⁵⁾하고 礪刀削⁽⁶⁾하야 斲⁽⁷⁾材木^할에 木之
陰陽⁽⁸⁾에 尙有堅脆^하야 堅者不入^하고 脆者皮弛^하며
至其交節⁽⁹⁾하이어늘 而缺⁽¹⁰⁾斤斧焉이라 夫一木之中
에도 堅脆不同^하야 堅者는 則剛^하고 脆者는 易傷^하은
沉其材木之不同에 皮之厚薄과 汁之多少가 而各
異邪^라오 夫木之蚤花先生葉者는 遇春霜烈風則
花落而葉萎^하고 久曝大旱則脆木薄皮者는 枝條
汁少而葉萎^하고 久陰淫雨則薄皮多汁者는 皮潰
而澆⁽¹¹⁾하고 卒風暴起則剛脆⁽¹²⁾之木이 枝折⁽¹³⁾
傷^하고 秋霜疾風則剛脆之木이 根搖而葉落^하니 凡
此五者도 各有所傷^하은 沉於人乎^라오

黃帝曰 以人應木은 奈何오

少俞答曰 木之所傷^에에 皆傷其枝^나 枝之剛脆
⁽¹⁴⁾而堅^하라던 未成傷也^라 人之有常病也^도 亦因其
骨節皮膚腠理之不堅固者^하야 邪之所舍也^라 故^로
常爲病也^나이다

【校 勘】

1) 留痺: 元刊本, 胡本, 藏本, 日刻本, 黃校本에
는 '留痺'로 되어 있다.

2) 夫天之生風者: 統本, 金陵本, 黃校本에는
'夫天之風者'로 되어 있다.

【字 句 解】

- (1) 期: 時也, 때 기.
- (2) 復還: 疾病의 傳變, 傳移를 말함.
- (3) 公平正直: 風의 發生原因이나 變化規律에
客觀性이 있다는 말임.
- (4) 求: 찾을 구.
- (5) 斧斤: 도끼.
- (6) 刀削: 칼.
- (7) 斲: 깎을, 쪼갤 착.
- (8) 木之陰陽: 나무 중 해를 향하고 있는 부분
을 陽, 해를 등지고 있는 부분을 陰이라고
한다.
- (9) 交節: 結節也, 나무의 마디.
- (10) 缺: 缺損, 破損.
- (11) 皮潰而澆: 樹皮가 문드러져 물기가 흥건
함.
- (12) 剛脆: 剛強하고 脆弱함.
- (13) 杝: 가지 없는 나무 울.
- (14) 剛脆: 強度.

【較 註】

[1] 黃帝問於少俞曰 余聞百疾之始期也 ……
避者得無殆 非求人而人自犯之

馬·景岳·張·校釋은 "이는 사람이 똑같이 邪
氣에 感觸되었는데도 病이 들고 안 들고의 차
이가 생기는 것은 하늘에 사사로움이 있어서
가 아니고 사람이 이를 제대로 避하느냐 못
避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¹⁾고 하였다.

[2] 黃帝曰 一時遇風 同時得病 …… 皮之厚薄

1) ●馬: 此는 言人之感邪同而病否異者가 非天之有私요
而人有避不避之異也라 ○景岳: 殆는 危也라 天非求
人이요 而人自犯之니 所以有少病多病者는 亦在乎人
之慎與不慎耳라 ○張: 馬仲尼曰 此는 言人之感邪同
而病否異者는 非天之有私요 而人有避不避之異也라
○校釋: 孫鼎宜는 復還은 爲傳變이라하니라

汁之多少 而各異耶

馬·景岳·張은 “이 문장은 나무의 材質을 빌려 사람의 稟賦를 비유한 것이다.”²⁾고 하였고, 校釋은 “皮弛의 皮는 離로 해석해야 하니 樹木의 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廣雅 釋詁의 王念孫疏證에 ‘皮는 剝이다’고 하였고 韓策에 ‘얼굴 가죽을 벗겨 눈을 파내고 배를 갈라腸을 꺼낸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離의 뜻이다. 皮弛는 바로 松散, 裂開이니 나무 재질이 견고하지 못함을 형용한 것이다.”³⁾고 하였다.

[3] 夫木之蚤花先生業者 …… 凡此五者 各有所傷 況於人乎

馬·景岳·張·語譯·白話解는 “이는 나무가 시드는 것은 각기 나무의 원인이 있음을 말하여 사람의 疾病도 또한 원인이 없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萎는 ㅍ이 威이니 蔞枯이고, 蔞은 ㅍ이 烟이니 사물이 선명치 못하여 색이 바라는 것이다. 潰는 ㅍ이 會이니 壞亂이다. 漉은 ㅍ이 鹿이니 水濕이 많은 모양이다. 杌은 ㅍ

- 2) 馬: 此는 總言人之感邪成病者가 以骨節皮膚腠理之不堅也라 帝問一時遇風하여 同時得病而病有各異하니 除不病者言也라 少俞言人之所以感於邪者도 亦因其骨節皮膚腠理之不堅耳라 試觀견대 一木之中에도 尙有堅脆라 故로 匠人斲削之에 有斧斤所不能入者는 蓋以堅者必剛也요 有斧斤所加而木皮即地者는 蓋以弛者必脆也니 不惟一木堅脆不同이라 凡木生之皮有厚薄하며 汁有多少者하니 寧能同哉리오 ●景岳: 此는 借木之材質하여 以方人之稟賦也라 ○張: 此章은 論因形而生病이 乃感六氣之化하여 有五變之紀也라 夫形之皮膚肌腠筋骨有厚薄堅脆之不同이라 故로 邪舍有淺深而其病各異하니 卽五臟之病消癰과 腸胃之有積聚도 亦因形之皮膚肌肉而病及於內也라 故로 以木之皮汁堅脆多少方之陰陽者는 木之枝幹皮肉也요 交節而缺斧斤者는 比人之皮肉脆而骨節堅剛也라 是以로 一木之中에도 尙有堅脆之不同하야 堅者則剛하고 脆者易傷하니 況其材木之不同耶리오 木之皮薄枝脆者는 比人之皮緻密膚腠疎也요 木之多汁小汁者는 比皮膚之津液多少也라
- 3) 校釋 皮弛의 皮는 作離解니 不是樹木之皮라 廣雅釋詁王念孫疏證에 釋言云 皮는 剝也라하고 韓策云 因自皮面抉眼하고 自屠出腸이라하니 是離之義也라 皮弛는 卽松散裂開니 形容木質不堅이라

이 兀이니 나무 중 가지가 없는 것이다.”⁴⁾고 하였다.

[4] 黃帝曰 以人應木奈何 …… 故常爲病也

馬·景岳은 “나무에 견고하고 취약함이 있으므로 손상에도 경증이 있게 되고, 사람한테도 튼튼하고 약함이 있으므로 걸리는 질병에도 微甚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同時에 風邪를 만나더라도 感受되고 感受되지 않음이 있으니, 이것이 病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이다.”⁵⁾고 하였다.

【考察】

- 4) 馬: 是以로 木之有花與葉而蚤發生者는 不惟四時之難歷也라 遇春霜烈風하야도 亦花落而葉萎矣요 木之質脆皮薄者가 遇久曝大旱하야도 亦枝枯而葉萎矣요 木之皮薄汁多者가 遇久陰淫雨하야도 亦皮潰而漉矣라 時或有卒風暴起則不分剛脆之木하고 亦枝折而肌傷矣라 時逢秋霜疾風則不分剛脆之木하고 亦根搖而葉落矣라 凡此五者도 尙爲風所하니 況於人乎리오 ●景岳: 此는 言木之凋殘에 各有所因하야 以方人之疾病도 亦無不有所致之也라 萎는 音威니 蔞枯也요 蔞은 音烟이니 物不鮮而色敗也라 潰는 音會니 壞亂也요 漉은 音鹿이니 水濕貌라 杌은 音兀이니 木之無枝者也라 ○張: 木之蚤花先業者는 木氣外敷而不禁風霜也라 皮薄多汁者가 遇久陰淫雨則潰而漉이요 剛脆之木이 遇卒風暴起則枝折肌傷이라 蓋汁多者는 不宜陰雨요 剛脆者는 又忌暴風이니 比人之腠理疎者漉汗이요 剛直多怒者消癰也라 木之所傷은 皆傷其枝니 枝之剛脆者易傷而堅者未成傷也라 故로 人之常病도 亦因其骨節皮膚腠理之不堅固者하야 邪之所舍而常爲病也라 ○語譯: 皮潰而漉은 是謂木經陰雨하야 木皮潰爛漉而汁液滲下라 ○白話解: 皮潰而漉의 漉은 音綠이라 是水徐徐下滲의 樣子라 皮潰而漉은 就是形容久經水濕하야 樹皮潰爛하야 滲出水分이 淋漓不止의 現狀이라 卒風의 卒은 是急의 意思라 卒風은 就是指急暴의 狂風而言이라 枝折肌傷의 杌은 音이 沒有枝葉의 樹皮를 叫做杌이라 枝折肌傷은 就是形容樹枝切斷하야 木干損傷의 樣子라
- 5) 馬: 然以人應木者는 正以木之所傷이 皆傷其枝니 枝有堅脆로대 而堅者不至於有傷이요 蓋必先傷其枝而後에 皮汁漸傷也라 人有常病於風者도 亦因其骨節皮膚腠理之不堅固而後에 漸入於腑臟耳니 何以異於木之先傷其枝者哉아 ●景岳: 木有堅脆하니 所以傷有重輕하고 人有堅脆하니 所以病有微甚이라 故로 雖同時遇風이나 而有受有不受하니 此病之所以異也라

1. '留痺'이 元刊本, 胡本, 藏本, 日刻本, 黃校本에는 '留痺'로 되어 있는데 앞에 消痺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痺證에 대한 논술이 나오므로 '留痺'은 '留痺'의 오자로 보인다.
2. 皮弛의 '皮'를 校釋에서는 樹木의 껍질로 보지 않고 離의 뜻으로 해석하여, 皮弛를 나무 재질이 견고하지 못함을 형용한 것으로 보았다. "堅者不入 脆者皮弛"의 문장구조로 볼 때 皮弛를 敘述語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校釋의 견해도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皮를 離로 해석하는 경우는 辭典學上 무리가 있고 皮를 樹皮로 보고 해석해도 전체적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樹皮의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直譯】

黃帝가 少兪에게 말씀하셨다. "내 듣기에 온갖 疾病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風雨寒暑에서 생기는데, 이것이 毫毛를 따라 腠理로 들어와 或 다시 傳變되기도 하고 或 머물기도 하며 或 風腫汗出이 되기도 하고 或 消痺이 되기도 하며 或 寒熱이 되기도 하고 或 留痺가 되기도 하고 或 積聚가 되기도 하여 奇邪가 淫溢되는 현상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하니, 願컨대 그 까닭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同時에 病을 얻었는데도 或 이렇게도 병들고 或 저렇게도 병이 드니 아마도 하늘이 風邪를 만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리 다른 말입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무릇 하늘에서 생기는 風邪는 사사롭게 百姓들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행이 公平하고도 正直합니다. 이 風邪를 犯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잘 避하는 사람은 위태로움이 없으니 風邪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가 禁忌를 범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하였다. "一時에 바람을 만나

同時에 病을 얻었는데 그 病이 각각 다르니 願컨대 그 까닭을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훌륭하신 질문이십니다. 請컨대 匠人에 비유하여 논하겠습니다. 匠人이 도끼와 칼을 갈아 材木을 자를 때에 나무의 陰陽에 堅脆가 있어 堅固한 곳은 들어가지 않고 脆弱한 곳은 쉽게 잘려지며 마디에 이르러서는 도끼가 부러집니다. 무릇 한 나무에서도 堅固와 脆弱이 달라 堅固한 곳은 剛하고 脆弱한 곳은 쉽게 손상을 받는데 하물며 材木이 달라 樹皮의 厚薄과 水液의 多少가 각기 다름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무릇 나무에 꽃이 제 때보다 일찍 피고 잎이 먼저 생기는 경우에는 봄의 서리나 烈風을 만나면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며, 오래 曝陽에 노출되거나 크게 가물면 脆弱하고 樹皮가 얇은 나무는 樹液이 적어져 잎이 시들게 되고, 오래 장마가 지면 樹皮가 얇고 樹液이 많은 나무는 樹皮가 문 들어져 물기가 흥건해지게 되며, 갑작스런 바람이 맹렬히 일어나면 強剛한 나무든 脆弱한 나무든 가지가 꺾여 尙상해지게 되고,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疾風이 불면 剛強한 나무든 취약한 나무든 뿌리는 흔들리고 잎은 떨어지니, 무릇 이 다섯 가지 경우에도 각각 손상이 있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 이겠습니까."

黃帝가 말씀하였다. "사람이 나무에 相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少兪가 대답하였다. "나무가 상할 때에는 다 그 가지가 상하나 가지의 強度가 堅固하면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병에 걸리는 것도 또한 그 骨節, 皮膚, 腠理가 堅固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邪氣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病이 됩니다."

第二章 五種疾病의 變化

第一節 風厥

【原文】

黃帝曰 人之善病風厥澼汗者¹⁾ 何以候之。
 少俞答曰 肉不堅²⁾하고 腠理疏則善病風³⁾이어나다
 黃帝曰 何以候肉之不堅也。
 少俞答曰 腠²⁾肉不堅而無分理⁴⁾하고 理者粗理⁵⁾하며
 粗理而皮不緻者⁶⁾는 腠理疏⁷⁾하니 此言其渾然¹⁾者⁸⁾나
 이다

【校勘】

- 1) 厥澼汗者: 『甲乙』卷十第二에는 '洒洒汗出者'로 되어 있다.
- 2) 腠: 『甲乙』卷十第二에는 '腠'으로 되어 있다.
- 3) 腠肉不堅而無分理 理者粗理 粗理而皮不緻者 腠理疏: 『甲乙』卷十第二에는 '腠肉不堅而無分理者 肉不堅 膚粗而皮不緻者 腠理疏'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渾然: 대체적인, 전체적인 情況.

【較註】

〔1〕黃帝曰 人之善病風厥澼汗者 …… 羸理而皮不緻者 腠理疎 此言其渾然者

馬·景岳·張은 “風邪가 腠理로 침범하여 汗이 설새없이 줄줄 나는 증세를 風厥이라고 한다. 무릎이 구부러지는 곳을 腠이라고 하니 바로 足太陽經의 委中穴이다. 腠中은 谿谷이 크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腠理가 거칠고 皮膚가 치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 몸의 腠理도 성길 것임을 徵驗할 수 있다.”⁶⁾고 하였

6) 馬: 此는 承上文而言善病風厥者는 以其腠理之疎也라 素問陰陽別論評熱病論에 皆有風厥하고 素問瘧論及本經逆順篇에 皆言無刺澼澼之汗이라하니 則風厥者는 其汗澼澼然也라 少俞答曰 肉不堅하고 腠理疎則善病風이라 黃帝曰 何以候肉之不堅也오 少俞言 肉不堅則 腠理必疎야 爲能病風이라 然이나 所以驗其肉之不堅者는 惟腓腸之上膝後曲處爲腠이니 乃委中穴所在也라 其肉不堅而無分理者는 其理必粗하고 粗理而皮不堅緻則一身之腠理必疎하니 所以善病風厥也라 此는

고. 丹波는 “詳考해보면 腠이 甲乙經에는 關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맞다. 腠肉은 온 몸의 肌肉狀態를 살필 수 있으니, 本藏等の 篇들을 볼 때 모든 醫家들이 腠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渾然은 分理가 없다는 말이니, 馬氏가 반대로 腠理가 성기지 않다고 한 것과 張志聰이 또한 온 몸에서 汗이 난다고 한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⁷⁾고 하였다.

【考察】

1. '腠'이 『甲乙』卷十第二에는 '關'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다. 腠肉은 肌肉이 뭉쳐 있는 곳 즉 팔뚝이나 어깨, 엉덩이, 장딴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을 만져 보면 肌肉의 발달정도를 알 수 있다.
2. '腠肉不堅而無分理 理者粗理 粗理而皮不緻者 腠理疏'가 『甲乙』卷十第二에는 '腠肉不堅而無分理者 肉不堅 膚粗而皮不緻者 腠理疏'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다. 黃帝의 물음이 肌肉의 發達狀況에 대한 것이므로 少俞의 대답에도 이에 관한 문장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傳寫過程中 잘못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3. 風厥은 內經에 세군데 나오는데 명칭은 같

乃言其肉之渾然者나 則皮必密하고 理不疎하면 尙何病風之有리오 ●景岳: 風邪逆於腠理하여 而汗出澼澼不止者를 病名風厥이니 又詳義見本類前三十이라 膝澼을 曰腠이니 卽足太陽經委中穴也라 腠中은 爲谿谷之大會라 故로 其理疏而皮不緻者는 可以驗通身腠理之疎也라 ○張: 朱永年曰 此言皮不緻密하고 肉理粗疎하여 致風邪厥逆於內而爲澼澼之汗이라 蓋津液이 充於皮膚之間이어는 皮膚理疎則津洩而爲汗矣라 委中之下를 曰腠이니 太陽之部分也라 蓋太陽之氣는 主於皮膚하니 如腠肉不堅而無分理호대 無分理者는 粗理也니 理粗而皮不緻密하면 則腠理疎而渾然汗出矣라 倪冲之曰 太陽之津氣는 運行於膚表하니 如天道之渾然하여 水隨氣行者也라 故로 皮不密則氣泄하고 氣泄則津亦洩矣라

7) 丹波: 按腠이 甲乙經에 作關爲是라 以腠肉은 候通身之肌肉하니 見本藏等篇컨대 諸家以腠釋之는 非也라 渾然은 卽無分理之謂니 馬氏反爲理不疎之義와 志聰亦爲渾然汗出은 并誤라

으나 그 機轉과 症狀은 다 다르다.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陰陽別論』: 二陽一陰發病 主驚駭背痛 善噫善欠 名曰風厥

『素問·評熱病論』: 帝曰有病身熱 汗出煩滿 煩滿不為汗解 此為何病 岐伯曰 汗出而身熱者風也 汗出而煩滿不解者厥也 病名曰風厥 帝曰願卒聞之 岐伯曰 巨陽主氣 故先受邪 少陰與其為表裏也 得熱則上從之 從之則厥也 帝曰治之奈何 岐伯曰 表裏刺之 飲之服湯

『靈樞·五變』: 黃帝曰 人之善病風厥漉汗者 何以候之 少俞答曰 肉不堅 腠理疎則善病風 黃帝曰 何以候肉之不堅也 少俞答曰 腦肉不堅而無分理 理者蠡理 蠡理而皮不緻者 腠理疎 此言其渾然者

「陰陽別論」의 風厥은 厥陰(肝)과 陽明(胃)의 이상으로 發病한 것으로 驚駭, 背痛, 善噫, 善欠을 주 증상으로 한다. 이는 風木이 胃土에 惡影響을 미친 것이어서 風厥이라 한 것인데, 木旺乘土의 機轉에 의하여 발병하였으므로 疏肝理氣시키는 방법으로 和解하여야 한다. 評熱病論의 風厥은 太陽에서 感受된 風邪가 그 表裏經인 少陰으로 파급되어 發病된 것이다. 太陽과 少陰이 合病되어 上熱下寒의 病證을 보이므로 風厥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表裏를 雙解하여야 한다. 本篇의 風厥은 腠理가 약하여 風邪의 침범을 막지 못하여 발병한 것으로 表虛證으로 볼 수 있다. 發熱, 惡風하면서 自汗이 심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桂枝湯이나, 玉屏風散, 補中益氣湯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사람이 風厥에 걸려 땀이 줄줄 나는 경우는 어떻게 진찰합니까?”

少俞가 대답하였다. “肌肉이 견고하지 못하고 腠理가 성기면 風에 잘 걸립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무엇으로 肌肉이 堅固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少俞가 대답하였다. “腦肉이 견고하지 못하고 分理가 없으며 分理가 있다 하더라도 거칠고, 分理가 거칠면서 皮膚가 치밀하지 못한 사람은 腠理가 성근 것이니, 이는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第二節 消痺

【原文】

黃帝曰 人之善病消痺⁽¹⁾者 何以候之

少俞答曰 五藏이 皆柔弱者 善病消痺이니이다

黃帝曰 何以知五藏之柔弱也

少俞答曰 夫柔弱者 必有剛強⁽²⁾ 하니 剛強多怒

¹⁾ 하면 柔者易傷也이니이다

黃帝曰 何以候柔弱之與剛強

少俞答曰 此人 薄皮膚而目堅固以深者⁽³⁾라 長衝⁽²⁾直揚⁽⁴⁾ 하야 其心剛 하니 剛則多怒하고 怒則氣上逆 하야 胸中畜積 하야 血氣逆留 하야 臈皮充肌⁽³⁾⁽⁵⁾ 하야 血脈不行 하면 轉而爲熱하고 熱則消肌膚⁽⁴⁾라 故로 爲消痺이니 此는 言其人暴剛而肌肉弱者也⁽⁵⁾이니이다

【校勘】

- 1) 必有剛強 剛強多怒野: 『甲乙』 卷十一第六에는 ‘必剛強 剛強多怒’로, 周本에는 ‘必有剛強多怒’로 되어 있다.
- 2) 長衝: 『甲乙』 卷十一第六에는 ‘長衝’으로 되어 있는데, 『靈樞·論勇』에도 역시 ‘長衝’으로 되어 있다.
- 3) 臈皮充肌: 『甲乙』 卷十一第六에는 ‘腹充皮脹’으로 되어 있다.
- 4) 熱則消肌膚: 『甲乙』 卷十一第六에는 ‘熱則消肌’로 되어 있다.
- 5) 其人暴剛而肌肉弱者也: 『甲乙』 卷十一第六에는 ‘其暴剛而肌肉弱者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消瘰: 消는 津液이 消耗되어 몸이 마르는 것을 말하고, 瘰은 內熱을 말하니, 熱이 內部에 盛하여 津液이 消盡되어 몸이 마르는 病證을 말한다.
- (2) 夫柔弱者 必有剛強: 柔弱은 五臟을 비롯한 器質이 弱한 것을 말하고 剛強은 性質이 사납다는 말이니, 몸은 유약한데 성격은 날카롭고 예민하여 화를 잘 내는 것을 말한다.
- (3) 目堅固以深者: 눈이 견고하다는 것은 튼튼하다는 말이 아니고 화를 잘 내어 눈을 부릅뜨서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深이라는 것은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위로 치뜨는 것을 말한다.
- (4) 長衡直揚: ‘衡’은 ‘衡’의 誤字로 보이는데, 衡은 눈썹부위를 말하는데 長衡直揚이란 눈썹이 솟아 있고 直視를 잘하여 눈빛이 형형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 (5) 臆皮充肌: 臆은 寬과 통하는데, 皮膚와 肌肉에 氣血이 몰려 탕탕하게 부풀어 있는 모양을 말한다.

【較註】

[1] 黃帝曰 人之善病消瘰者…… 此言其人暴剛而肌肉弱者也

馬·景岳·張은 “性格과 氣質이 剛勁하고 사나우면서 肌肉이 弱한 사람은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消瘰에 잘 걸린다.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肌肉이 必히 弱하고 눈이 堅固하고 눈빛이 똑바른 사람은 그 마음이 必히 剛勁하다. 衡은 눈빛이 突出되어 나오는 것을 말한다. 怒하면 氣가 逆上하고 氣가 逆上하면 血이 留滯되기 때문에 鬱結되어 熱로 化해 가지고 消瘰을 형성하게 된다. 臆은 寬과 같다.”⁸⁾

8) 馬: 此는 承首節而言善病消瘰者는 以其心則剛強而五臟與肌肉則柔弱也라 消瘰者는 多飢渴而肉瘦하니 瘰則內熱也라 少俞言此人者는 五臟柔弱하고 心則剛強하여 剛強多怒하고 柔弱則易傷耳라 何也오 正以其皮

고 하였다.

【考察】

1. ‘長衡直揚’의 ‘衡’은 『甲乙』卷十一第六에 ‘衡’으로 되어 있고, 『靈樞·論勇』에도 역시 ‘衡’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로 보아 이것이 맞다.
2. 消瘰은 消渴을 말하는데 內經에서는 열일곱 군대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原因別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素問·通評虛實論』에 “消瘰 … 肥甘貴人則高粱之疾也”고 하였는데 이는 肥甘한 음식물의 太過로 일어나는 消渴을 말한다. 肥甘厚味는 內熱을 발생시켜 消渴의 原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素問·氣厥論』에 “心移寒於肺爲肺消”라 하였는데, 이는 肺에 寒邪가 침범하여 津液을 氣化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消渴을 말한다. 세 번째 『靈樞·師

膚甚薄하고 肌肉甚弱하며 其目堅固以深하고 其人甚剛하여 有長衡直揚之勢라 故로 心剛則多怒하고 怒則 氣上逆하여 血爲之積하고 氣爲之留하여 皮膚肌肉爲之充塞而血脈不能通하니 所以蒸而爲熱하고 熱則消肌膚而消瘰之病成矣라 ●景岳: 性氣剛暴而肌肉弱者는 乃易於傷이라 故로 善病消瘰이라 皮膚薄者는 肌肉必弱하고 目堅固而視直揚者는 其心必剛이라 衡者는 目光突露之謂라 怒則氣逆하고 氣逆則血留라 故로 鬱而爲熱하여 而成消瘰이라 臆은 寬同이라 ○張: 消瘰者는 瘰熱而消渴消瘦也라 邪氣臟腑病形篇曰 五臟之脈이 微小爲消瘰이라하니 蓋五臟은 主藏精者也라 五臟이 皆柔弱則津液竭而善病消瘰矣라 夫形體者는 五臟之外合也니 薄皮膚而肌肉弱則五臟이 皆柔弱矣라 夫柔弱者必有剛強은 謂形質弱而性氣剛也라 故로 此人薄皮膚而目堅固以深者는 其氣長衡直揚之勢야야 其心剛하니 剛則多怒하고 怒則氣上逆而血積於胸中하고 氣逆留則先充塞於肌肉하고 血蓄積則脈道不行하고 血氣留積하여 轉而爲熱하고 熱則消肌膚라 故로 爲消瘰이니 此는 言其人暴剛而肌肉弱者也라 蓋肌肉弱則五臟皆柔하고 暴剛則多怒而氣上逆矣라 朱永年曰 按컨대 本經有五臟之消瘰하며 有肌肉之消瘰이라 五臟之消瘰은 津液內消而消渴也요 肌肉之消瘰은 肌肉外消而消瘦也라 蓋因於內者는 必及於外하고 因於外者는 必及於內하니 形體五臟外內相合也라 高士宗曰 按平脈篇云 腎氣微少하면 精血奔하고 氣促迫하여 上入胸膈이라하니 蓋精血少則逆氣反上奔이라 故로 曰柔弱者必有剛強이니 謂五臟之精質柔弱而氣反剛強이라 是는 柔者愈弱而剛者愈強이니 剛柔之不和也라

傳』에 “胃中熱則消穀 令人懸心善飢”라 하였는데 이는 胃中에 熱이 熾盛하면 津液을 소모시켜 肌肉을 마르게 한다. 네 번째는 본 편에서 말하고 있는 消渴로 五臟의 柔弱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五臟이 弱하면 水穀의 精微를 제대로 運化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津液代謝에 장애가 생겨 氣血이 문란해지고 肌肉을 자양하지 못하여 몸이 마르게 된다. 또한 본 편에서는 五臟은 약한데 性情이 부드럽고 너그럽지 못하여 화를 잘 내면 본 病이 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體質과 性格이 질병발생의 원인이 됨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사람들 중에 消癯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진찰할 수 있습니까?”

少俞가 대답하였다. “五臟이 다 柔弱한 사람들이 消癯에 잘 걸립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어떻게 五臟이 柔弱한 지를 알 수 있습니까?”

少俞가 대답하였다. “무릇 柔弱한 사람은 반드시 剛強하니, 剛強해서 화를 자주 내면 柔弱한 곳이 쉽게 손상당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어떻게 柔弱과 剛強을 진찰할 수 있습니까?”

少俞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은 皮膚는 薄弱한데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위로 치뜨는 사람들인지라 눈썹이 발달되고 눈을 정면으로 치켜떠서 그 마음이 사나우니, 마음이 거칠고 사나우면 화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면 氣가 上逆하여 胸中에 蓄積되고, 血氣가 逆留하여 피부와 肌肉이 팽팽해져 血脈이 運行이 안 되면 熱로 轉化하게 되고 熱이 나면 肌膚를 消燼하게 되므로 消癯이 되니, 이는 마음이 暴惡하고 거칠면서 肌肉은 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第三節 寒熱

【原文】

黃帝曰 人之善病寒熱者 是何以候之

少俞答曰 小骨弱肉¹⁾者 善病寒熱^{어니이다}

黃帝曰 何以候骨之大小 肉之堅脆 色之不一也

少俞答曰 頤骨者^는 骨之本也^니 頤大則骨大^요 頤小則骨小^{로되} 皮膚薄而其肉無膈²⁾ 하고 其臂懦懦然¹⁾ ^{히며} 其地色殆³⁾ ^然 ^{히야} 不與其天同色²⁾ ^{히야} 汚然³⁾ ^{獨異} ^{하니} 此其候也^다 然後⁴⁾ 臂薄者^는 其髓不滿^리 故^로 善病寒熱也^{나니라}

【校勘】

- 1) 小骨弱肉: 아래 문장 黃帝의 질문에 ‘色之不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色不一’ 3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 2) 皮膚薄而其肉無膈: 『甲乙』卷八第一上에는 ‘皮膚薄而肉弱無膈’으로 되어 있다.
- 3) 殆: 『甲乙』卷八第一上에는 ‘寔’로 되어 있다.
- 4) 然後: 『甲乙』卷八第一上에는 ‘然’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懦懦然: 無氣力하여 힘이 없는 모양.
- (2) 其地色殆然 不與其天同色: 地는 地閣 즉 턱을 말하고 天은 天庭 즉 이마를 말하며, 殆然은 色이 潤澤하지 못하여 神氣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래턱의 色이 潤氣가 없이 거친 것을 말하거나, 얼굴이 전체적으로 검고 神氣가 없는 현상을 말함.
- (3) 汚然: 색이 어둡고 光澤이 없음. 注證發微에는 汗然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다.

【較註】

[1] 黃帝曰 人之善病寒熱者 …… 其髓不滿 故 善病寒熱也

馬·景岳·張·校釋은 “이는 骨格이 작고, 肌肉이 弱한 사람이 寒熱에 잘 걸린다는 것을 이

아기한 것이다. 腎은 骨을 주관하는데 鵠骨이 腎의 外候가 되기 때문에 鵠骨이 骨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鵠骨이 크면 온 몸의 骨도 모두 크고, 鵠骨이 작으면 온 몸의 骨도 작음을 알 수 있다. 膈은 肌肉이 살졌는지의 指標가 된다. 儒儒는 柔弱한 모양이다. 팔뚝이 박약한 사람은 팔다리의 큰 肌肉들도 豐盛하지 못하다. 地色은 地閣의 色이다. 殆不與天庭同色은 土氣가 낮고 潤氣가 없는 것이다. 髓는 骨을 채우는 것이니, 骨이 작으면 髓도 가득 채워지지 못하게 된다. 인체 의면에 있는 器官中 皮膚는 陽, 筋骨은 陰이 되니, 骨이 작고 皮膚가 박약하면 陰陽이 모두 虛한 것이다. 陽虛하면 寒이 발생하고 陰虛하면 熱이 발생하기 때문에 骨이 작고 皮膚가 박약한 사람은 寒熱病에 잘 걸리게 된다. 倪冲之가 말하길 '津液은 三焦를 따라 氣를 發出하여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腠理를 채우며 骨을 潤澤하게 적서 腦髓를 補益하고 皮膚를 윤택하게 하니, 만일 팔뚝이 박약한 사람은 온 몸의 皮肉도 박약하고 皮肉이 薄弱하면 津液도 竭少되기 때문에 팔뚝이 박약한 사람은 骨髓도 채워지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高士宗이 말하길 邪氣가 皮膚에 있으면 發熱하고 깊이 骨로 들어가면 發寒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9)

9) 馬: 此는 承首節而言善病寒熱者는 以其骨小肉弱色濁髓枯也라 蓋欲知骨小인댄 必驗顴骨이라 鵠骨者는 目下高骨이니 乃骨之本也라 卽顴有大小而周身之骨大小可驗이면 則骨小者所以易病寒熱也라 欲知肉弱인댄 必驗周身之肉與兩手之臂니 今皮膚既薄而其肉無膈이라 無膈者는 肉無分理也라 其臂儒儒然而弱則肉弱者所以易病寒熱也라 面有天地人三部하니 其地色殆然하야 不與其天同色하야 汗然甚濁하야 獨異于上中二部하면 則色濁者所以易病寒熱也라 欲知髓之虛滿인댄 又驗臂之厚薄라 故로 臂薄者는 其骨必小하고 其髓不滿이라 惟髓不滿則腦爲髓之膈니 凡風池風府가 內通於腦而邪易入之하니 所以易病寒熱也라 ○景岳: 骨屬腎하고 肉屬脾하니 皆至陰之所在也라 陰不足則陽邪易以入之라 故로 善病寒熱이라 目下顴骨을 曰顴이니 周身骨骼大小를 可驗於此也라 顴은 音權이요 髌은 音革이라 膈은 肉之結聚而堅者也라 儒儒然은 柔弱貌라 地氣陰濁하고 天氣清明이로되 質色有餘而神色不

【考察】

1. '小骨弱肉'은 아래 문장 黃帝의 질문에 '色之不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小骨弱肉의 뒤에 '色不一' 3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2. '然後'가 『甲乙』卷八第一上에는 '然'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다.
3. 本篇에서 다루고 있는 寒熱은 腎의 陰陽이 不足한 虛勞寒熱을 말한다. 腎陽이 不足하면 寒氣가 발생하고 腎陰이 부족하면 虛熱이 발생하여 寒熱證이 생긴다. 또한 腎은 先天의 根本으로서 腎氣가 虧損되면 뼈대가 작고 肌肉이 軟弱하여 外邪에 感觸되기도 쉽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사람들 중 寒熱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진찰합니까?"

少俞가 대답하였다. "骨이 작고 肉이 弱한 사람이 寒熱에 잘 걸립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骨의 小大와 肉의 堅脆와 色이 한결같지 않음을 진찰할 수 있습니까?"

足하니 是地不與天同色也라 故로 殆然汚然其狀有異라 肉有堅脆하고 色有不同하니 於此에 可驗強弱也라 膈은 渠允切이요 儒는 儒糯軟三音이라 髓爲骨之充이니 陰之精也라 故로 髓不滿者는 當病寒熱이라 ●張: 此는 言骨小肉弱者善病寒熱者라 夫腎主骨이로되 顴者腎之外候也라 故로 鵠骨爲骨之本이라 顴大則周身之骨皆大요 顴小則知其骨小也라 膈者는 肉之脂標也라 儒儒는 柔弱也라 臂薄者는 股肱之大肉不豐也라 地色者는 地閣之色이라 殆不與天庭同色은 此土氣之卑汚也라 髓者는 骨之充也니 骨小則其髓不滿矣라 夫在外者는 皮膚爲陽이요 筋骨爲陰이니 骨小皮薄則陰陽兩虛矣라 陽虛則生寒하고 陰虛則發熱이라 故로 其人骨小皮薄者는 善病寒熱也라 倪冲之曰 津液은 隨三焦出氣하야 以溫肌肉充腠理하고 滲澤注於骨하야 補益腦髓하고 潤澤皮膚하니 如臂薄者는 通體之皮肉薄弱矣요 皮肉薄弱則津液竭少라 故로 曰臂薄者其髓不滿이라 高士宗曰 邪在皮膚則發熱하고 深入於骨則發寒이라 ○校釋: 其地色殆然 不與其天同色の 地는 指地閣이니 卽下巴라 天은 指天庭이니 卽前額部位라 殆然은 色天不澤而無神氣라

少俞가 대답하였다. “顛骨은 骨의 根本이니, 顛骨이 크면 骨도 크고, 顛骨이 작으면 骨도 작되, 皮膚가 薄하고 그 腠肉이 없으며 그 臂가 無氣力하고 그 地閉에 潤氣가 없어 天庭의 色과 같지 않아 이상하리만치 거무튀튀하니 이것이 그 徵候입니다. 그렇게 臂가 薄弱한 사람은 그 骨髓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寒熱에 잘 걸립니다.”

第四節 留痺

【原文】

黃帝曰 何以候人之善病痺者^오

少俞答曰 粗理而肉不堅者 善病痺^{니이다}

黃帝曰 痺之高下有處乎^아

少俞答曰 欲知其高下者^{인댄} 各視其部¹⁾(1)^{니이다}

【校勘】

1) 各視其部: 『甲乙』卷八第一上에는 ‘視其三部’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各視其部: 인체의 上下左右에 분포되어 있는 팔다리의 피부와 肌肉狀態와 五臟의 堅脆狀況을 보고 痺證이 어디에 나타날 것인지 혹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心肺의 이상으로 생긴 痺證은 上部에, 肝腎脾의 이상으로 생기는 痺證은 下部에 증상이 잘 나타난다.

【較註】

[1] 黃帝曰 何以候人之善病痺者 …… 欲知其高下者 各視其部

馬·景岳·張은 “이는 腠理가 거칠고 肌肉이 堅固하지 못한 사람이 痺證에 잘 걸린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理는 肌肉의 文理이니, 만일 腠理가 거칠고 성겨서 緻密하지 못하면 邪氣가 머물러 痺證이 된다. 무릇 皮, 脈, 肉, 筋,

骨은 五臟의 分部이다. 痺論에 말하길 ‘風寒濕三氣가 섞여 이르러 합쳐지면 痺가 되니, 겨울에 이를 만나면 骨痺가 되고, 봄에 이를 만나면 筋痺가 되며, 여름에 이를 만나면 脈痺가 되고, 至陰(長夏)에 이를 만나면 肌痺가 되며, 가을에 이를 만나면 皮痺가 된다.’하였기 때문에 각각 그 部位를 보면 痺의 高下를 알 수 있다. 대개 心肺의 痺는 높은 데에 나타나고, 肝腎脾의 痺는 낮은 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⁰⁾고 하였다.

【考察】

痺證은 보통 그 原因에 따라 風痺, 寒痺, 濕痺로 나누기도 하고, 五臟의 이상을 검하였을 때에는 骨痺, 筋痺, 脈痺, 肌痺, 皮痺로 분류하기도 한다. 本篇에서는 腠理와 肌肉의 脆弱으로 外邪가 침범하여 생기는 痺證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腠理와 肌肉이 견고하지 못한 것은 體內 精氣의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精氣가 약하면 外邪의 감축을 받기 쉬워 痺證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痺證에 잘 걸릴지를 알 수 있습니까?”

少俞가 대답하였다. “腠理가 거칠고 肌肉이 堅固하지 못한 사람이 痺證에 잘 걸립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痺의 높고 낮음에 일정한 부위가 있습니까?”

10) 馬: 此는 承首節而言善病痺者는 其人理粗肉脆而痺之所成하니 其高下各視乎分部也라 ○景岳: 肉不堅이면 則風寒濕邪가 易以入也라 人之上下左右에 虛實自有不同이라 故로 當各視其部라 ●張: 此는 言理粗而肉不堅者善病痺也라 理者는 肌肉之文理니 如粗疎而不緻密則邪留而爲痺라 夫皮脈肉筋骨은 五臟之分部也라 痺論曰 風寒濕三氣雜至하여 合而爲痺니 以冬遇此者爲骨痺요 以春遇此者爲筋痺요 以夏遇此者爲脈痺요 以至陰遇此者爲肌痺요 以秋遇此者爲皮痺라하니 故로 各視其部則知痺之高下라 蓋心肺之痺在高하고 肝腎脾痺在下也라

少俞가 대답하였다. “그 高下를 알리고 하면 各各 그 發病하기 쉬운 부위를 보면 됩니다.”

第五節 積聚

【原文】

黃帝曰人之善病腸中積聚¹⁾者是何以候之
少俞答曰皮膚薄²⁾而不澤³⁾肉不堅而淖澤⁴⁾하
나如此則³⁾腸胃惡²⁾하고 惡則邪氣留止³⁾하야 積聚
乃傷⁴⁾호대 脾胃之間에 寒溫不次³⁾하야 邪氣稍至⁴⁾
면 稽⁴⁾積留止³⁾하야 大聚乃起⁴⁾니이다

【校勘】

- 1) 積聚: 『甲乙』卷八第二에는 '積'으로 되어 있다.
- 2) 皮膚薄: 『甲乙』卷八第二에는 '皮薄'으로 되어 있다.
- 3) 則: 統本, 金陵本에는 이 글자가 없다.
- 4) 傷: 『甲乙』卷八第二에는 '作'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淖澤: 약간 축축(濕潤)한 것을 말함. 혹 肌肉이 물러 손으로 밀면 쉽게 밀리는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 (2) 腸胃惡: 惡은 惡化, 失調, 變調의 뜻으로, 腸胃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말이다.
- (3) 寒溫不次: 次는 次序, 秩序의 뜻으로 溫度의 不適切을 표현한 말이다.
- (4) 稽: 蓄과 同.

【較註】

【1】黃帝曰人之善病腸中積聚者……邪氣稍至稽積留止大聚乃起

馬·景岳·張은 “皮膚가 薄弱한 사람은 肌肉도 堅固하지 못하고 皮膚가 潤澤하지 못한 것은 血이 不足한 것이며, 淖澤은 濕滯가 많은 것이다. 이는 그 腸胃가 박약하고 氣稟에 虧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或 外邪에 積중되어

체내에 쌓이게 되고, 或은 腸胃의 온도가 적절하지 못하여 邪氣의 침범을 막지 못하게 되어 큰 積聚가 형성된 것이다.”¹¹⁾고 하였다.

【考察】

本篇에서 다루고 있는 積聚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皮膚와 肌肉이 박약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은 腸胃의 기능도 좋지 못하여 外邪의 침범을 당하기 쉬운데 이 邪氣가 체내에 停留되면 積聚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腸胃가 飲食 등의 부적절한 섭취로 인하여 온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邪氣의 침범을 받으면 이 邪氣를 물리칠 抗病能力이 부족하여 積聚가 생긴다는 것이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腸중에 積聚가 잘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진찰할 수 있습니까?”

少俞가 대답하였다. “皮膚가 薄弱하여 潤澤하지 않고 肌肉이 堅固하지 못하고 축축한 사람들이 잘 걸리니, 이런 사람들은 腸胃도 안 좋고 腸胃가 안 좋으면 邪氣가 체내에 留止하여 積聚가 생기게 됩니다. 脾胃사이에 溫度가

11) 馬: 此는 承首節而言善病腸中積聚者가 以其腸胃之惡也라 惡者는 猶云不好라 蓋欲之腸胃之惡인면 必驗其皮膚之薄而不潤澤이니 不潤澤者는 無血也요 其肉不堅而反爲淖澤이니 淖澤者는 推之則移也라 如此則其在內之腸胃가 必惡하고 惡則風寒暑濕之邪氣가 留止積聚하야 以傷腸胃라 其衣食寒煖이 又不以次하니 所以邪氣薄至而稽積留止하야 至於大聚하야 從此而日成矣라 ●景岳: 皮膚薄者는 肉不堅也요 不潤澤者는 血不足也요 淖澤者는 濕滯多也라 此는 其腸胃薄惡하고 氣稟之有虧也라 故로 或中外邪하야 留而不去하고 或腸胃寒溫이 有不以次하야 皆足致邪而大聚起矣라 ○張: 朱永年曰 夫皮膚薄而氣不能充身澤毛하고 肉不堅而津液不能淖澤하니 如此則腸胃惡이라 蓋津液血氣는 腸胃之所生也니 惡則邪氣留止而成積聚하야 乃傷脾胃之間이라 若再飲食之寒溫不節하야 邪氣稍至하면 卽稽積而大聚乃起라 夫腸乃肺之合而主皮主氣하고 胃乃脾之合而主肉主津이라 故로 皮膚薄而肉不堅則氣不充而津液不淖澤矣라 氣不充而液不淖澤則毫毛開而腠理疎하고 疎則邪氣留止하야 漸滯於腸胃之間而成積聚矣라

정상적이지 못하여 邪氣가 조금이라도 침범하게 되면 이 邪氣가 쌓이고 머물러 큰 積聚가 발생하게 됩니다.”

第三章 體質과 發病時期

【原文】

黃帝曰 余聞病形⁽¹⁾ 知⁽²⁾ 矣 願聞其時⁽³⁾

하노이다

少俞答曰 先立其年⁽⁴⁾ 以知其時⁽⁵⁾ 時高則起⁽⁶⁾

時下則殆⁽⁷⁾ 雖不陷下⁽⁸⁾ 當年有衝通⁽⁹⁾ 其病必起⁽¹⁰⁾

是謂因形而生病⁽¹¹⁾ 五變之紀也

이다

【校勘】

1) 通: 日抄本에는 '道'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病形: 어떤 疾病에 特徴적으로 나타나는 外部形態의 變化를 말함.
- (2) 時: 疾病이 발생하는 時間.
- (3) 先立其年 以知其時: 그 해의 干支를 정하여 運氣의 變化를 계산함.
- (4) 時高則起 時下則殆: 時高는 客主加臨에서 客氣가 主氣를 勝하는 順을 말하고 時下는 主氣가 客氣를 勝하는 逆을 말한다. 起는 病이 낫는다는 말이고, 殆는 病이 危殆롭게 된다는 말이다.
- (5) 陷下: 主氣가 客氣를 勝하는 때 즉 逆을 말함.
- (6) 當年有衝通: 衝通은 “年有所衝 氣有所通”을 말하는데, 體質이 그 해의 性質과 맞지 않아 上衝되어 邪氣에 感觸되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木形之人이 乙庚年을 만나면 서로 上衝되어 病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 뿐 아니라 反侮關係에 의해서도 病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木形之人이 甲己年을 당하여 兪辛여김을 당하면 오히려

병드는 현상을 衝通이라고도 한다.

(7) 起: 疾病發生을 뜻함.

(8) 因形而生病: 形은 五形人中 特定體質을, 生病은 五形人이 年運의 五行生克關係로 病이 생김을 말함.

【較註】

[1] 黃帝曰 …… 時高則起 時下則殆

馬·景岳·黃은 “이는 五變을 總結하고 그 凶吉의 時期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먼저 그 해의 干支를 決定하면 五運과 六氣가 각기 확립되기 때문에 그 때의 運氣를 알 수 있게 된다. 무릇 病者가 生王의 時를 만나면 이것이 時高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으니 起라는 것은 낫는다는 말이다. 만일 衰克의 때를 만나면 이것은 時下이니 病은 危殆롭게 된다. 六元正紀大論에도 ‘先立其年 以明其氣’라고 하였으니 運氣類十七에 자세히 나와 있다.”¹²⁾ 고 하였고, 張·校釋·白話解는 “時高則起 時下則殆는 疾病의 發生과 發展이 外界氣候要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運氣學說에 근거하여 氣候의 變化와 各年의 서로 다른 時序를 대체로 결정해 보면 各年의 不同한 干支가 一年의

12) 馬: 此는 承上文而言所以成病之時하야 ‘當明五變之紀也라 按컨대 素問六元正紀大論曰 先立其年하야 以明其氣니 金木水火土運行之數와 寒暑燥濕風火臨御之化면 則天道可見이요 民氣可調라하니 卽如太陽之政은 乃辰戌之紀也니 其年爲太陽司天하고 太陰在泉하야 有勝有復이라 民病이 其初主氣는 自厥陰以至太陽하야 固無所易하고 其客氣는 自少陽以至太陽하야 加於其上하야 民病이 隨時而生이라 故로 時高則病起하고 時下則病殆라 時高者는 方臨方復之時也요 時下者는 勝者復而復者又勝也라 蓋病始爲起요 病危爲殆矣라 雖脈不陷下라도 當年有衝通하면 其病必起라 ●景岳: 此는 總結五變하고 而問其凶吉之期也라 先立其年하면 則五運六氣에 各有所生이라 故로 知其時라 凡病遇生王이면 則時之高也라 故로 可以起니 起는 言愈也요 如逢衰克이면 則時之下也니 病當危殆矣라 六元正紀大論에 亦曰 先立其年하야 以明其氣라하니 詳運氣類十七이라 ○黃: 願聞其時는 病起之時也라 先立其年은 立其主運之年也라 以知其時는 知其時令之生克也라 時高則起는 得生旺而病愈也라 時下則殆는 遇衰剋而病危也라

각기 다른 氣候特徵을 나타내니 이것을 大運이라 하고, 每年은 또 五段階의 季節로 나누는데 이는 각기 固定的인 氣候特徵을 나타내니 이를 主運이라고 하며, 各年の 干支에 따라 每年에 각각 다른 五種의 非固定的인 氣候가 있으니 이를 客運이라고 한다. 이 외에 一年 中에 여섯 階段의 기후변화가 있는데 그 中 永遠히 不變하는 固定的인 氣候要素를 主氣라고 하고 各年の 干支에 따라 非不固定인 氣候要素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客氣라고 한다. 各年이나 各季節이 갖고 있는 氣候의 영향은 매우 심대한데, 이 氣候要素들은 孤立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相互作用하는 것이니, 바로 疾病에 미치는 影響으로 이야기하자면 氣와 運의 關係와 主氣와 客氣間의 關係狀況이 가장 重要하다. 이러한 關係는 五行의 生克에 근거하여 表現한 것이다. 어떤 때의 氣候要素는 主氣와 客氣間의 相互作用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때가 많다. 主氣와 客氣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一年氣候의 逆順等의 情況을 파악하여 이것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每年 변화하는 客氣가 固定不變하는 主氣 上에 加을해지는 現象을 客主加臨이라고 한다. 만약 客氣가 主氣를 이기면 順이니 客氣가 上이 되고 主氣가 下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客氣가 主氣에 加해지는 情況을 '上勝下'라 하고 '上勝下'의 順은 實際上 當時 氣候變化가 비교적 적고 劇烈하지 않아 人體에 대하여 正常活動을 할 수 있게끔 유리하고 發病은 輕緩하며 疾病은 쉽게 낫는 것은 나타내니. 이러한 情況을 '時高則起'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主氣가 客氣를 이기면 逆이라고 하고 또한 '下勝上'이라고 하니, 이는 當時의 氣候變化가 크고 劇烈하여 發病이 무겁고 急하며 病이 쉽게 낫지 않음을 나타내니. 이러한 情況을 '時下則殆'라고 한다."¹³⁾고 하였으며, 丹波는 "詳考해 보면 本節을 모든 醫家들이 運氣家의 말로 해석하

13) 張: 風雨寒暑는 運行之六氣也니 六氣在外하야 以病形故로 當先立其年하야 以知其時之六氣라 如辰戌之歲는 太陽司天이라 二之客氣는 乃陽明燥金이요 主氣는 乃少陰君火니 此主氣勝臨御之氣라 值此時氣高而病必起라 起者는 卽帝所謂或復還也라 如三之客氣는 乃太陽寒水요 主氣는 乃少陽相火며 四之客氣는 乃厥陰風木이요 主氣는 乃太陰濕土며 五之客氣는 乃少陰君火요 主氣는 乃陽明燥金이며 終之客氣는 乃太陰濕土요 主氣는 乃太陽寒水라 值時氣下而爲客氣所勝이라 故로 其病必殆라 殆는 將也라 時氣下而不能勝則病將留止니 卽帝所謂或留止也라 蓋風雨寒暑는 乃臨御之化니 六期環轉하야 客於形而爲病이라 故로 必因時氣以勝之니 此論六氣之在外也라 ●校釋: 時高則起時下則殆는 疾病의 發生發展이 與外界氣候因素이 有密切關係로되 而根據運氣學說하야 氣候의 變化와 又決定于各年の不同時序를 大致說來면 不同的年分이 有不同的全年氣候總特徵하니 這個年度の總特徵稱爲大運이요 每年分成五個季節하고 各有固定的氣候特徵하니 稱爲主運이요 按紀年の干支하고 又有每年各不相同的依時序出現의 五種非固定氣候하니 稱爲客運이라 此外에 一年之內에 還分成六個階段하니 每個階段有永遠不變的固定的氣候因素하니 稱爲主氣요 依紀年干支而又有各階段의 不固定的氣候因素하니 稱爲客氣라 因此影響某年の某個時季氣候의 因素很多하니 這此因素又都不是孤立存在而是相互作用的이니 就對疾病의 影響來說하야 以氣與運의 關係와 主客氣間의 關係狀況爲最重要라 而這些關係는 根據五行의 生克來表現的이라 某一時序의 氣候因素는 尤以主氣客氣相互作用對人體影響更大라 若把主氣와 客氣合起來하면 就能更具體地推測一年氣候의 逆順等情況하야 以測知對人體의 影響이라 每年輪轉의 客氣加在固定不變의 主氣上을 便稱爲客主加臨이니 若客氣勝過主氣하면 就稱爲順이니 以客氣爲上이요 主氣爲下라 這種客氣加臨于主氣之上의 情況을 就是上勝下요 而上勝下의 順은 實際上 標志當時氣候變化較小하고 不劇烈하야 對人體來說에 有利于機體의 正常活動하야 發病輕緩하고 疾病易愈하니 這種情況을 就是時高則起라 反之하야 若主氣勝過客氣則稱爲逆이요 也就是下勝上이니 標志當時의 氣候變化大而劇烈하야 使人體發病重急하고 病不易愈하니 這就是時下則殆의 意思라 ○白話解: 而且在一年의 氣候中에 有主氣와 客氣의 區別이라 主氣爲主時之氣니 用來說明四時二十四節氣의 正常規律이요 客氣는 是指時令氣候의 異常變化니 它和主氣의 固定不移者并不相同이라 如果把主氣와 客氣加起來면 就能更具體地推測一年氣候의 逆順等情況이니 從而豫測對人體의 影響이라 也就是每年輪轉의 客氣加在固定主氣之上을 便稱爲客主加臨이니 如客氣의 力量이 勝過主氣의 力量을 稱爲順(上勝下)이니 順則代表本年氣候의 異常尙不太大하야 對人體來說에도 發病輕而緩요 也就是本節所謂時高則起의 意思라 相反的으로 主氣의 力量이 勝過客氣의 力量을 稱爲逆(下勝上)이니 逆則代表本年氣候異常變化

였으나 運氣說是 唐代 以後에 나온 學說이니, 이 학설로 解釋하는 것은 不可하다. 만드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니 훗날의 바른 考察을 기다린다.”¹⁴⁾고 하였다.

[2] 雖不陷下 當年有衝通 其病必起 是謂因形而生病 五變之紀也

馬·景岳·黃·校釋은 “비록 衰克에 빠진 시기는 아니라도 그 해와 相衝됨이 있으면 邪氣에 감촉되어 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는 上節에서 말한 起의 뜻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水火가 相衝하면 火는 水를 두려워하고 金木이 相衝하면 木은 金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火가 勝하면 水도 病이 들고 木이 勝하면 金도 病이 들기 때문에 金形之人이 丁壬年에 도리어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木形之人이 甲己年에 도리어 병이 드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을 ‘因形生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五種病變이 발생하는 綱紀이다.”¹⁵⁾고 하였고,

張은 “陷下는 腸胃사이에 陷入되어 積聚를

較大하야 對人體來說에 發病重而急이요 也就是本節所謂時下則始의意思라

14) 丹波: 按컨대 本節을 諸家竝以運氣家之言而解之라 然이나 運氣之說은 昉于唐以後하니 乃不可以彼解此요 必別有義之所存하니 俟攷라

15) 馬: 且其因形而生病은 如木形之人而病於戊癸之年이니 乃五運以爲五變之紀也라 ●景岳: 雖非衰克陷下之時나 而年有所衝이면 則氣有所通하야 其病亦因而起하니 此는 非上節之所謂起也라 如水火相衝하면 火當畏水하고 金木相衝하면 木當畏金이라 然이나 火勝則水亦病하고 木勝則金亦病이라 故로 有以金形之人而反病於丁壬年者하고 有以木形之人而反病於甲己年者하니 是謂因形生病이니 五變之紀也라 ○黃: 雖不陷下 當年有衝通 其病必起는 雖非衰剋之時나 而當其年有所衝犯而感通이면 其病亦所必起라 起는 病作也라 是謂因形而生病 五變之紀也는 因其形虛而生病이 五變之綱紀也라 ○校釋: 因形而生病의 形은 指人本身의 五行屬性이라 古人根據人體의 氣質하야 將人分成五種類型하야 分別以五行加以概括이라 如木形之人 土形之人等 不同類型의 人이 在 不同的時間裏에 由于五行生克하야 反侮關係而導致生病을 即謂之因形而生病이라 如因反侮關係而金形之人이 病于丁壬年(屬木)하고 及木形之人病于甲己年(屬土)等이라

이루는 것이다. 衝通이라는 것은 五運之氣가 모두 外部로 나와 그 病氣를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면 太陽寒水司天에 五運이 太宮土運이면 內의 運氣가 六氣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病이 생길 수가 없다.”¹⁶⁾고 하였다.

【考察】

16) 張: 陷下者는 陷於腸胃之間而成積聚也라 衝通者는 五運之氣通出於外而衝散其病氣也라 如太陽寒水司天而五運乃太宮土運이면 此在內之運氣勝之라 故로 病亦不能留止也라 蓋六氣在外하야 以應天之三陰三陽하고 五運主中하야 以應地之五行人之五臟하니 此臟氣勝歲氣라 故로 雖不陷下하야 病留止於外者라도 亦能衝通而散이라 蓋六氣는 主升降於上下하고 五運은 主出於外內者也라 是謂因形而生病 五變之紀也는 夫皮膚肌腠曰形이니 腠者는 皮膚肌肉之文理니 乃營衛出入之道路니 此는 病形而不病氣者也라 如病氣則與營衛俱行하야 淫於內而與魂魄飛揚矣요 如傳溜於血脈則入臟腑하니 爲內所因矣라 此는 病形而不病氣니 亦不溜於脈中이라 故로 爲澀汗消瘴寒熱留痺積聚五者之病이 卽陷於內호대 乃傷脾胃之間과 郭郭之中하야 而不及於臟腑라 此奇邪淫溢이 或病形하고 或病氣하고 或溜於血脈하고 或入於臟腑하야 病之變化 不可勝數也라 是以로 傷寒論六篇에 首論三陰三陽之氣하야 以及六經之證이라 然이나 亦有病形而不病氣者라 故로 太陽篇中曰 形作傷寒이라 蓋在天成氣하고 在地成形하니 此天地之生命이 所以立形定氣而視壽夭者니 必明乎此라야 臨病人하야 以觀邪之中人이 或病氣 或病形 或溜於血脈 或入於臟腑하야 以知病之輕重과 人之死生者니 必明乎此라 朱永年曰 素問運氣諸篇에 有客氣勝主氣而爲民病者와 主氣勝客氣而爲民病者하고 有六氣勝五運而爲民病者와 五運勝六氣而爲民病者하니 此는 概論歲運之太過不及也라 此篇은 論人之皮薄理疎와 風雨寒暑之氣가 循毫毛而入腠理爲五變之病이라 故로 藉主氣以勝之라 主氣者는 吾身中有此六氣而合於天之四時也라 朱衛公曰 氣者는 三陰三陽之氣니 相將出入之營氣衛氣三焦通會元眞之氣하야 所以充行於皮膚肌腠之間하니 此病形而不病氣라 故로 藉此形中之陰陽하고 合四時之六氣以勝邪하니 若病氣則又有氣之變證矣라 倪冲之曰 按陰陽別論曰 氣傷病하고 形傷腫하니 先痛而後腫者는 氣傷形也요 先腫而後痛者는 形傷氣也라 하니 蓋形舍氣하고 氣歸形이라 故로 病形이면 必及於氣하고 病氣면 必及於形이라 此章은 論病形而不病氣니 蓋陰陽之道는 有有形하고 有無形하며 有經常하고 有變易이라 高士宗曰 理者는 皮膚臟腑之文理也라 蓋在外는 乃皮膚肌肉之文理요 在內는 乃臟腑募原之文理라 故로 留止而成積聚者는 在臟腑外之募原이라 故로 乃傷脾胃之間而不涉於臟腑募原者니 連於腸胃之膏膜이라

“時高則起 時下則殆”를 馬·景岳·黃 등은 運氣相臨의 盛衰로 설명하고 張·校釋·白話解 등은 客主加臨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반하여 丹波는 運氣學說은 唐代 以後에 출현한 것이므로 運氣說로 이 대목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運氣學說의 起源을 考察해보면 丹波의 見解에 一理가 있다. 運氣學說은 東漢이나 東漢以前에 起源하였다는 學者도 있고, 魏晉以後나 唐代에 발생하였다는 學者도 있으므로 運氣學說의 立場으로 본 句節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運氣學에서는 ‘高下’라는 用語를 잘 쓰지 않는 것도 이를 證明한다. 高下를 運氣學과 연관시키지 않고 高를 氣運이 旺盛한 時期, 下를 氣運이 衰弱한 時期로 單純化하여 해석하는 것도 靚當을 것이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내 病形에 대하여 들어서 이미 알고 있으니 願컨대 그 시기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俞가 대답하였다. “먼저 그 年을 세워 그 時를 알아야 하니, 時가 높으면 병에서 일어나고 時가 낮으면 위태롭습니다. 비록 時가 낮을 때가 아니라도 그 해에 衝을 당하여 通함이 있으면 그 病이 필히 발생합니다. 이를 체질에 따라 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니, 五變의 綱紀입니다.”

IV. 結論

1. 第一章의 ‘留痺’은 ‘留痺’의 誤字로 보인다. 皮弛의 ‘皮’를 校釋에서는 樹木의 껍질로 보지 않고 離의 뜻으로 해석하여, 皮弛를 나무 재질이 견고하지 못함을 형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皮를 樹皮로 보고 해석해도 전체적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

으므로 樹皮의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 第二章 第一節의 ‘膈’이 『甲乙』卷十第二에는 ‘膈’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고, ‘膈肉不堅而無分理 理者粗理 粗理而皮不緻者 腠理疏’가 『甲乙』卷十第二에는 ‘膈肉不堅而無分理者 肉不堅 膚粗而皮不緻者 腠理疏’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다. 風厥은 內經에 세 군데 나오는데 명칭은 같으나 그 機轉과 症狀은 다 다르다. 陰陽別論의 風厥은 厥陰(肝)과 陽明(胃)의 이상으로 發病한 것으로 驚駭, 背痛, 善噫, 善欠을 主症狀으로 한다. 이는 風木이 胃土에 惡影響을 미친 것이어서 風厥이라 한 것인데, 木旺乘土의 機轉에 의하여 發病하였으므로 疏肝理氣시키는 方法으로 和解하여야 한다. 評熱病論의 風厥은 太陽에서 感受된 風邪가 그 表裏經인 少陰으로 과급되어 發病된 것이다. 太陽과 少陰이 合病되어 上熱下寒의 病證을 보이므로 風厥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表裏를 雙解하여야 한다. 本篇의 風厥은 腠理가 약하여 風邪의 침범을 막지 못하여 發病한 것으로 表虛證으로 볼 수 있다. 發熱, 惡風하면서 自汗이 심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桂枝湯이나, 玉屏風散, 補中益氣湯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第二章 第二節의 ‘長衝直揚’의 ‘衝’은 『甲乙』卷十一第六에 ‘衝’으로 되어 있고, 『靈樞·論勇』에도 역시 ‘衝’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로 보아 이것이 맞다. 消痺은 消渴을 말하는데 內經에서는 열일곱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原因別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肥甘한 음식물의 太過, 肺에 寒邪가 침범하여 津液을 氣化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 胃中에 熱이 熾盛하여 津液을 소모시켜 肌肉을 마르게 하는 경우, 五

臟의 柔弱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4. 第二章 第三節의 '小骨弱肉'은 뒤에 '色不一' 3字가 탈락된 것으로 보이고, '然後'가『甲乙』卷八第一上에는 '然'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다. 寒熱은 腎의 陰陽이 不足한 虛勞寒熱을 말한다. 腎陽이 不足하면 寒氣가 발생하고 腎陰이 부족하면 虛熱이 발생하여 寒熱證이 생긴다. 또한 腎은 先天의 根本으로서 腎氣가 虧損되면 뼈대가 작고 肌肉이 軟弱하여 外邪에 感觸되기도 쉽다.
5. 第二章 第四節의 痺證은 보통 그 原因에 따라 風痺, 寒痺, 濕痺로 나누기도 하고, 五臟의 이상을 겸하였을 때에는 骨痺, 筋痺, 脈痺, 肌痺, 皮痺로 분류하기도 한다. 本篇에서는 腠理와 肌肉의 脆弱으로 外邪가 침범하여 생기는 痺證을 언급하고 있다.
6. 第二章 第五節에서 다루고 있는 積聚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皮膚와 肌肉이 박약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腸胃가 飲食 등의 부적절한 섭취로 邪氣를 물리칠 抗病能力이 부족하여 積聚가 생긴다는 것이다.
7. 第三章의 "時高則起 時下則殆"를 馬·景岳·黃 등은 運氣相臨의 盛衰로 설명하고 張·校釋·白話解 등은 客主加臨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반하여 丹波는 運氣學說은 唐代 以後에 출현한 것이므로 運氣說로 이 대목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高下를 運氣學과 연관시키지 않고 高를 氣運이 旺盛한 時期, 下를 氣運이 衰弱한 時期로 單純化하여 해석하는 것도 靚當을 것이다.

參考文獻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2.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3.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4. 張馬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서울 一中社, 1988.
5. 陣夢雷外 1人: 醫經註釋(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6.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8.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9.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0.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1.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2. 小曾戶洋: 黃帝內經古注選集5(靈樞講義), 오리엠티出版社, 1988.
13.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14. 王貴元 外1人: 評析本白話黃帝內經, 北京 廣播學院出版社, 1993.
15. 王冰: 王冰註靈樞經, 臺灣中華書局, 1972.
16.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論章, 1990.
17. 元陽真人: 黃帝內經(附白話全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3.
18. 李政育: 靈樞讀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19. 宗全和: 靈樞經, 春秋出版社, 內蒙古自治區, 1988.
20. 池田政一: 靈樞概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2.